

국가로서의 우산국

권오엽*

국문초록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우산국은 우한한 도이의 나라였다. 그러나 그것은 신라 중심의 이야기로 우산국의 실체를 설명하는 용어가 아니다. 우산국을 설명하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우산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용어들은 신라를 설명하는 용어였다. 우산국은 신라의 침범을 1회 이상 격퇴시킨 나라다. 말하자면 신라는 우산국과의 전쟁에서 1회 이상 패한 일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무위로는 정벌하기 어려우니 계책을 써야 한다며, 나무로 만든 사자로 위협하는 계책을 사용한 것이다.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는 신라의 왕족이며 최고의 관리였다. 그래서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는 일은 거국적인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신라의 침략을 우산국이 1회 이상 격퇴했다는 것은, 우산국이 신라에 대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나라였다는 것이다.

우산국이 나무로 만든 사자를 두려워하며 항복했다는 것은 사자를 매개로 하는 문화, 즉 불교문화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원래 사자는 우산국은 물론, 삼국과 중국에도 없고, 인도에나 있는 맹수였다. 그래서 우산국 사람들은 볼 수 없었고,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며 항복했다는 것은, 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인식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삼국이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자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인식하는 사자는 공상의 맹수로 영혼을 운반하는 신의 사자, 불법을 수호하는 성수, 주술적 능력을 발휘하는 맹수였다. 우산국 사람들은 이사부가 보이는 목우사자를 보고 그런 사자, 불교를 수호하는 성수로서의 사자를 연상한 것이다. 그 사자를 이사부가 전선에 신고 와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사부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사자가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것으로 여기고 항복한 것이다. 무위로 신라의 침략을 격퇴시킬 수 있는 우산국이었지만 사자를 매개로 계책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명예교수

중등교육연구 제29집 (2017년), pp. 1-26.

사자를 매개로 하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우산국이었다면, 우산국은 『삼국사기』가 말하는 우한한 도이의 나라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주변국과 교류하며 불교문화를 수입하는 독자적인 나라, 신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고 있던 국가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산국은 울릉도만이 아니라 주변의 섬,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암도를 포함하는 영역을 영토로 하는 나라로 보아야 한다. 지증왕이 우산국과 울릉도를 같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벌의 대상을 울릉도가 아닌 우산국으로 말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주제어: 삼국사기, 우산국, 목우사자, 이사부, 울릉도, 독도, 죽도, 불교

I. 서문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표기는 없으나,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우산국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 그것은 이사부가 512년에 신라에 복속시킨 나라로, 울릉도와 독도를 영역으로 하는 국가였다. 지증왕과 이사부가 울릉도와 우산국을 병칭하면서도 정벌의 대상을 우산국으로 칭한 사실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사부가 512년에 행한 정벌은 『삼국사기』의 「신라본기」와 「열전」, 그리고 『삼국유사』의 「지철로왕」조에 전하는데, 인명과 정벌의 대상에 차이를 보이거나 내용은 유사하다. 그래서 동질의 기록으로 간주하기도 하는데, 정벌의 대상을 우산국으로 하는 것과 울릉도로 하는 차이, 즉 국과 도라는 큰 차이가 있다. 정벌의 대상을 울릉도로 한 『삼국유사』는 지증왕과 국의 특별한 관계를 간과한 것이다.

혁거세가 건국한 나라는 사라 사로 등으로 불리고, 군주호도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과 같은 방언으로 칭했다. 지증도 즉위하여 마립간을 칭하다 즉위 4년 쯤인 503년에 신라를 국호로 하고 제왕을 칭해야 한다는 신하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신라국왕을 칭했다. 신라의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을 국으로 칭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지증왕이 정벌의 대상을 울릉도가 아닌 우산국이라 한 것은 정벌의 대상이 섬이 아니라 나라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이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내용은 신라 중심이기 때문에 우산국을 우한이나 도이와 같은 용어로 차별하지만, 우산국의 입장에서 기술했다면 그런 차별적인 용어는 신라를 서술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산국을 설명하는 차별적인 용어는 신라의 판단일 뿐, 우산국의 실체를 반영하는 용어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차별적인 용어가 의외로 우산국의 실체를 알려준다. 이사부는 우산국을 무위로 복속시킬 수 없으니 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목우사자를 보이며 협박하는 계책을 강구했는데, 그것은 신라가 우산국과의 전쟁에서 1회 이상 패한 일이 있다는 것, 즉 우산국이 신라와의 전쟁에서 1회 이상 승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산국 병사들이 이사부가 보이는 목우사자가 두려워 항복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산국 병사들이 사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의 신라나 우산국에는 사자가 없었다. 그런데도 목우사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우산국의 실체를 아는 일이다.

사자는 우산국과 신라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없었다. 그런 사자가 불교를 수호하는 성수라는 인식이 중국에서 성립되어 삼국으로 전래되었다. 그러나 우산국을 침공하는 512년의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지 않았다. 은밀한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신라가 목우사자를 보이며 위협하고 우산국 병사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신라와 우산국이 불법을 수호한다는 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고구려와 백제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를 인식했듯이 신라나 우산국도 주변국과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와 불법을 수호한다는 사자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우산국이 이처럼 주변국과 교류하는 가운데 침략하는 신라와 교전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인식은 물론 영토인식이 정립되어 있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신라의 우산국 침략은 울릉도의 영토를 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산국이 그것에 대항하는 것은 영토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다. 말하자면 우산국은 영토를 지키기 위해 신라 전쟁을 치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식과 영토인식이 분명한 우산국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독도를 통치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육안으로 확인하며 통치영역에서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 같은 사실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II. 신라의 우산국 인식

1. 우산국의 기록

『삼국사기』가 전하는 우산국은 다음과 같다.

13년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의를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의 해도에 있어 혹은 울릉도라고도 하거니와, 땅이 사방 백리로, 천험을 믿고 귀복치 아니하였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생각하되,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 위세로써 내복케 하기는 어려우나 계교를 써서 항복받을 수는 있다 하고, 이에 목우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신고 그 나라 해안에 이르러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맹수를 놓아 밟아 죽이겠다고 하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며 곧 항복하였다.*

하슬라 군주 이사부가 무위로 우산국 복속시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며, 목우사자를 풀어서 밟아 죽이게 하겠다는 거짓말로 복속시킨 결과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벌의 대상이 울릉도가 아닌 우산국이라 했다. 『삼국사기』의 열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13년 임진에 아슬라주 군주가 되어 우산국의 병합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 十三年，夏六月于山国歸服，歲以土宜為貢，于山国，在溟州正東海島 或名薔陵島，地方一百里，恃嶮不服，伊飡異斯夫為何瑟羅州軍主，謂于山人其愚悍，難以威來，可以計服，乃多造木偶獅子，分載戰船，抵其国海岸，誑告曰，如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国人恐懼則降(『三國史記』卷第四，新羅本紀，智証麻立干，李丙燾譯註，을유문화사，1996).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엄으로는 항복 받기 어려우니 모계로써 복속시킬 수밖에 없다 하고, 이에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가서 거짓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 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놓아 밟아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곧 항복하였다.*

아슬라주를 하슬라주로 표기하고, 거짓을 의미하는 광고를 사고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 차이는 있으나 내용은 유사하다.** 그것을 『삼국유사』는

아슬라주 동쪽 바다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곳에 우릉도(지금의 우릉)가 있다. 이 섬은 둘레가 2만 6천 7백 30보이다. 이 섬 속에 사는 오랑케들은 그 바닷물이 깊은 것을 믿고 몹시 교만하여 조공을 바쳐오지 않았다. 이에 왕은 이찬 박이종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게 했다. 이때 이종은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큰 배에 싣고 위협했다. 너희가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짐승을 놓아버리겠다. 이에 오랑케들은 두려워하여 항복했다. 이에 이종을 상주어 주백을 삼았다.***

『삼국사기』의 지증왕과 이사부를 『삼국유사』는 지철로왕과 박이종으로 하고, 우산국과 울릉도를 병기한 『삼국사기』와 달리 우릉도라 했다. 울릉도의 국인을 도이로 표기한 것이나 전선을 1척의 대선으로 한 것도 다르다.

지도로왕과 지증왕, 그리고 이사부와 박이종은 동일인이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우산국과 울릉도, 『삼국유사』의 우릉도와 우릉은 단순한 표기의 차이로 볼 수

* 異斯夫(惑云苔宗), 性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戲加耶(或云加羅)國取之, 至十三年壬辰, 爲阿瑟羅州軍主, 謨并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計服, 乃多造木偶獅子, 分載戰艦, 抵其國海岸, 詐告曰, 如若不服, 則放此猛獸踏殺之, 其人恐懼則降(『三國史記』卷第44, 異斯夫).

** 『삼국사기』는 같은 문장에 지명의 溟州와 관위의 何瑟羅主를 병기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권35 잡지제4는 「本高句麗(一作何瑟羅), 後屬新羅…今新羅北界溟州…景德王十六年, 改爲溟州」로 설명하였다. 이를 李丙燾는 「溟州를 신라의 북계 또는 濊의 古國이라 한 것을 보면, 東濊의 중심지인 不耐濊, 즉 比列州(지금의 安邊)를 개칭한 것이 분명한데, 사기 撰者는 景德王 때에 何瑟羅主를 개칭한 溟州로 오인한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삼국사기』 하권 P,231).

*** 第二十二, 智哲老王. 姓金氏, 名智大路, 又智度路. 諡曰智證. 諡號始于此. 又鄉稱王爲麻立干者. 自此王始. 王以永元二年庚辰即位(惑云辛巳則三年也) ……又阿瑟羅州(今溟州)東海中便風二日程, 有于陵島(今作羽陵). 周廻二萬六千七百三十步. 島夷恃其水深. 驕傲不臣. 王命伊喰朴伊宗, 將兵討之. 宗作木偶獅子, 載於大艦之上. 威之云. 不降則放此獸. 島夷畏而降. 賞伊宗爲州伯『三國遺事』 卷第1 智哲老王, 李民樹역, 乙酉文化社, 1985).

**** 李丙燾역주 『三國史記』하(乙酉文化社, 1996)386頁, 주11, 12.

없다. 울릉도 우릉도 우릉은 구전의 도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에 의한 차이로 볼 수 있으나 우산국은 다르다. 우산국의 국은 울릉도나 우릉도의 도와 동질의 단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삼국사기』가 國人^{국인}을 어리석고 사납다는 愚悍^{우한}으로 표기한 것을 『삼국유사』가 驕傲^{교오}한 島夷^{도이}로 달리 표기했다. 그것들은 우산국을 차별하는 용어로, 우산국을 정벌하는 신라에게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질의 용어다.

2. 위치와 국명

울릉도는 동해안 울진 죽변에서 130,3K지점에 위치한다. 이를 『삼국사기』는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 쪽의 해도에 있어, 혹은 울릉도라고도 하거니와, 땅이 사방 백리」라 했고 『삼국유사』는 「동북 바다에 순풍으로 이틀 걸리는 곳」에 존재하며 그 둘레가 26,730보라 했다. 『삼국사기』가 백리로 기록한 것을 『삼국유사』는 항해 시간과 울릉도의 둘레를 같이 기록했다.

『삼국사기』의 100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삼국유사』와 비교하면 명주에서의 거리나 울릉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지, 방일백리」로 읽고 사방 100리로 해석하면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삼국유사』의 16,730보의 둘레와 대응하고. 「지방, 일백리」로 읽으면 명주에서의 뱃길 2일과 대응시킬 수 있다. 이 경우 16,730보는 약 49킬로미터로 『삼국사기』의 사방 100리와 대응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100리가 40킬로미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주와 울릉도의 거리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는 일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100리를 실수가 아닌 원거리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산국을 『삼국사기』는 「혹명 울릉도」로, 『삼국유사』는 「于陵島(지금의 羽陵^{우릉도})」라고 각각 이름을 소개했다. 울릉도와 우릉도는 한자표기의 문제로, 재래식 도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문제와 신라시대의 지명을 고려시대에 기록하는 시간 상의 문제에 의한 이기로 보아야 한다. 『삼국유사』가 우릉도를 지금의 우릉이라고 주로 설명한 것은, 그 외에도 다수의 이름이나 이기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삼국사기』

* 李鍾旭은 『三國遺事』七十二國의 「地方百里」와 『三國史記』本紀第一「東北一百里」를 근거로 小國의 영역을 1만명의 인구를 거느릴 정도로 보았다(『신라의 역사』 1, 김영사, 2002, P.88).

** 維此聖人 瞻諺百里(『詩經』大雅 桑柔).

가 우산국과 울릉도를 병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우산국과 울릉도는 단순히 병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과 도, 즉 나라와 섬이라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가 우산국을 상징하거나 대표할 수는 있어도 우산국 그 자체일 수는 없다. 국은 나라를 의미하는 방과 통용되는 문자로,* 천자의 제후가 다스리는 곳, 도읍, 교내, 성중, 고향, 지방 등을 의미하여, 일정한 세력을 형성한 지역으로 제후가 통치하는 곳으로서의 국과** 소지역으로서의 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가적인 형태를 갖춘 국과 그것에 이르지 못한 지역으로서의 국이다. 그에 비해 도는 수중의 육지를 의미하여,**** 국과는 다르다. 도가 국을 포함한다기보다는 국이 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은 둘 이상의 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도가 국을 포함할 수는 없다.

물론 도 자체가 국가일 수는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가 우산국과 울릉도를 병기한 이상 이 국과 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우산국의 정벌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울릉도는 우산국을 대표하는 도명으로 보아야 한다. 국의 대표적 도명이나 도읍이 국호를 대신하거나 겸하는 경우는 많다.*****

『삼국유사』에는 국이라는 표기가 없고 우릉도(우릉)·도이로 표기되어, 정벌의 대상이 우릉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해서 우릉도와 주변의 섬들로 구성되는 우산국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벌의 대상이 우산국의 우릉도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사부가 정벌의 대상을 도가 아닌 국으로 칭한 것은 지증왕의 국에 대한 인식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마립간으로 즉위한 지증은 신라를 국호로 개정하고 신라를 통치하는 군주호도 왕으로 개칭하면서 스스로를 신라국왕으로 칭할 정도로 국의 의미에 민감했기 때문이다.*

지증이 신라국왕을 칭한 의미는, 신하들이 건의한 내용으로도 알 수 있다. 신하들은 옛날부터 나라를 가진 자들은 모두 제왕을 칭하는데 자국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

* 「以佐王治邦國[注]大曰邦, 所曰國, 邦之所居亦曰國」(周禮, 天官, 大宰).

** 「皆曰天下國家[注]國, 謂諸侯之國」(孟子, 離婁上).

*** 「山國龍虎節, 土國用人節, 譯國用龍節」(周禮, 地官, 掌節).

**** 「島, 說文作嶋(字彙補). 嶋, 海中往往有山可依止, 曰嶋从山鳥聲」(說文).

***** 大和가 한 지명이면서 日本을 의미하거나, 筑紫가 九州의 일부이면서 그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 群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중략)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 宜矣 又觀自古有國家者 皆稱帝稱王 自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未正尊號 今群臣一意 謹上號新羅國王 王從之(『三國史記』智證麻立干 4년조).

립간과 같은 방언의 군주호와 사라 사로 등을 국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며 개정을 건의했다. 주변 제국이 한자의 국호와 군주호를 사용하는 것을 의식한 건의로, 국제화되지 못한 불만에 근거하는 건의였다. 그것을 지증 마립간이 수용하여 스스로 신라국왕을 칭하기 시작했다. 신화와 군주가 국제관계 속의 자국의 위치,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지증왕이 우산국의 정벌을 명하는 시기의 고구려는 문자명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492년에 위의 효문제한테 책봉을 받았고, 494년에는 남제한테, 508년에는 양의 고조한테 받았다. 백제 근초고왕도 372년에 진에 사자를 파견하여 진동장군을 책봉 받았고, 386년에는 진사왕이 책봉 받았다. 416년에는 동진의 안제가 전지왕을 같은 진동장군으로 책봉했다.*

그런데 512년에 위에 3회나 조공한 지증왕이 책봉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국제질서에 참여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천하와 무관했던 국가, 독자적인 천하관을 구축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신라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보면, 주변과의 관계를 신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는 내용이 많아, 신라도 독자적인 천하관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증왕 이전의 신라와 중국의 관계는 381년에 위두를 진에 보내 토산물을 바친 정도였으나.**** 『진서』는 진한이 280년과 281년에 방물을 바친 사실을 전한다.***** 그렇다 해도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빈약하여, 진과 교섭한 이후에 양에 단 1회 입조했을 뿐, 법흥왕 8년까지 교섭이 없었다.*

*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晉書』帝紀九，咸安2年6月)，以百濟王世子餘暉爲使持節，都督，鎮東將軍，百濟王。(『晉書』帝紀，太元11年 夏4月)，以百濟王餘映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宋書』百濟傳)

** (元年)爲使持節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3年)爲使持節散騎喪侍都督營平二州征東大將軍樂浪公，四年 春二月 遣使入魏朝貢 大旱 夏五月 遣使入魏朝貢，(7年)可撫軍[一作東]大將軍開府儀同三司 夏五月 遣使入魏朝貢 冬十二月 遣使入魏朝貢，二十二年 春正月 遣使入魏朝貢 夏五月 遣使入魏朝貢 冬十二月 遣使入魏朝貢 (『三國史記』高句麗本紀，文咨明王)

*** 權五曄 「『삼국사기』의 朴赫居世 神話」-신라의 세계관과 우산국, 『日本文化學報』 제31輯, 韓國日本文化學會, 2006, 445頁.

**** 遣衛頭入苻秦，貢方物，苻堅問衛頭曰，卿言海東之事，與古不同，何耶，答曰，亦猶中國時代變革，名號改易，今焉得同(『三國史記』新羅本紀，奈勿尼師今二十六年)

***** 武帝太康元年，其王遣使獻方物。二年復來朝貢，七年又來(『晉書』卷97，列傳67，四夷)

* 申滢植 「三國의 對中外交」 『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95, 307頁)

『광개토왕비문』의 신라는 고구려에 조공하는 방법으로 고구려가 중심인 천하에 참여하고 있었다.* 『중원고구려비석문』도 장수왕이 신라왕을 매금이라 칭하며 의복을 하사한 내용을 전한다.** 신라가 국제 사회의 질서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다.

그처럼 주변국들이 중국의 질서에 따라 질서화되는 상황에서, 신하들이 타국의 군주들이 제왕을 칭한 사실을 거론하며 군주호와 국호의 개정을 건의하고, 지증왕이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은 조공을 매개로 하는 국제간의 질서, 즉 중국 중심의 천하사상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그런 지증왕이 울릉도가 아닌 우산국을 정벌하라는 명을 내린 것은, 정벌의 대상을 울릉도만이 아니라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독도를 포함한 영역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신라의 국호에 사방을 망라한다는 라를 포함시킨 것을 보아도, 지증왕이 말한 우산국은 울릉도와 그 주변의 섬들을 망라하는 공간을 영역으로 하는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화이적 용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신라 중심의 기록이라 용어의 사용도 그렇다. 『삼국사기』는 우산국 사람을 ^{우한}愚悍으로 『삼국유사』는 ^{도이}島夷와 ^{교오}驕傲로 단정했다. 이런 차별적 용어는 신라의 정벌에 정통성을 부여한다. 이런 용어들은 자타를 차별하는 ^화華夷思想에 근거하는 것으로, 차별된 상대에게 은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정벌해야 한다는 ^{왕화}王化사상으로 이어진다.

차별되는 이는 화에게 복속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복속하는 경우와 저항하다 복속되는 경우가 있다. 저항하는 경우에는 무위에 근거하는 침략으로 이어지는데, 왕화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침략이 아니다. 예를 모르는 이를 무덕으로 계도하여 왕화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천하의 중심국이 주변국을 정벌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은덕을 베푸는 시혜다. 이는 화에게 복속되어야 하고 화는 복속한 이를 왕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 권오엽 『廣開土王碑文의 世界』(제이앤씨, 2007), 355頁

** 百殘新羅舊是屬民由末朝貢……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廣開土王碑文』); 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賜寐錦之衣服……教諸位賜上下衣服東夷寐錦(『中原高句麗碑釋文』)

화의 책무이고 이의 도리라는 것이 천하사상이다.

이의 정도가 심할수록 화의 위치는 절대적이고 정벌의 필요성도 증대한다. 그런 필요에 따라 사용된 것이 우한·도이·교오 등과 같은 용어다. 이것들은 신라에 정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산국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우산국의 실체를 노정한다.

이사부가 사용한 誑告나 詐告가 그렇다. 誑은 속이다·어루뭉다·혼란시키다 등을 의미하는 문자로 誑이나 誑과도 통한다.* 詐는 속이다·어루뭉다·거짓말하다·말을 꾸민다·함정에 빠뜨리다 등을 의미한다.** 그런 誑과 사가 이야기하다·말하다·포고하다 등을 의미하는 고와 조립된 誑告나 사고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용어가 통치자의 능력을 설명하게 되면 의미가 달라진다. 통치자의 거짓과 속임수는 능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일본 『고사기』의 천손 ^{아마토마케리노미코토}倭健命은 여장하는 방법으로 적을 토벌하기도하고 친구를 속여서 살해하기도 하는데, 천신의 혈통을 계승한 천손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술이 아닌 지혜와 능력으로 평가된다. ^{진 토쿠 덴 노우}仁德天皇의 처첩 행위도 마찬가지다. 처첩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음란한 지도자가 아니라 유교적 성왕으로 평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산국을 차별하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우산국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런 용어들이 우산국의 입장에서 사용된다면, 신라인은 차별하는 용어가 된다.

1. 우한

우한을 어리석고 사납다는 의미이나, 이것 역시 우산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표기다. 적어도 우산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에는 지혜가 기능하지 않는 자, 바보 같은 생각, 바보 등의 의미가 있고,**** 한에는 거칠다, 조금하다, 격심하다 등의

* 誑詐也(『釋文』), 天又誑之[注]誑猶惑也」『國語』晉語2), 誑通作迂(『正字通』), 誑通作誑(『正字通』).

** 詐, 欺也(『說文』), 無伐功而求榮富, 詐也(『呂氏春秋』務本), 有挾挈伺詐[注]詐僞其辭, 詐之也[注]祠謂陷阱奇伏之類(『公羊』哀,9).

*** 神野志隆光『古事記を読む』下(日本放送出版協會, 1994),P,142.

**** 非是是非謂之愚(『荀子』脩身), 三叔曰, 蠢愚[注]蠢愚, 生而癡騃童昏者(『周禮』秋官 司刺),

의미가 있다. * 신라는 우에 중점을 두고 우산국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보려 했으나 한에는 강하다, 용맹하다, 날카롭다 등의 의미가 있어,** 한 중심으로 해석하면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신라가 우산국을 무위로 복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책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한을 어리석고 사납다 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부가 강구했다는 목우사자를 보이며 위협하는 계책도 마찬가지다. 어리석어서 속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우한했다면 목우사자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조소하며 거칠게 공격했을 수도 있다.

목우사자가 얼마나 정교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두려워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만일 목우사자의 외형을 두려워했다면 그것은 우한한 대응이 아니라 나약한 대응이었다. 그래서 우산국 병사들이 두려워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목우사자가 상징하는 가치로 보아야 한다.

두려움은 상대를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자는 우산국과 신라는 물론 중국에도 없어. 도저히 실견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사자를 보아도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두려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목우사자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전에 사자를 매개로 하는 문화를 경험하여 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2. 도이와 교오

『삼국유사』는 정벌의 대상을 우릉도라며, 『삼국유사』가 편찬되는 당시에 우릉으로도 표기한다는 사실도 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곳의 주민을 도이, 교오로 단정했다. 이곳의 이는 동방에 있는 군자국의 사람·미개인·원방 등을 의미하는데,*** 신라 중심의 표기이기 때문에 원방의 미개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표기다. 중국의 원방이라는 점에서는 신라도 우릉도와 다르지 않았는데, 신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릉도를 정벌할 수 있는 정통성을 획득한다.

용어의 차별로 정벌의 정통성을 획득하는 일은, 자국 중심의 천하에서는 얼마든지

敢不, 畧陳愚而抒情慄(『漢書』王褒傳).

* 析原禁悍[注]悍凶暴也(『荀子』王制), 悍性急也(『中華大字典』), 水湍悍[注]集解曰, 悍彊也(『史記』河渠書).

** 上患吳會稽輕悍[注]師古曰, 悍, 勇也(『漢書』吳王 濞傳), 妻悍忌不得蓄媵妾(『後漢書』馮衍傳), 石藥之氣悍[注]悍者, 利也(『素問』腹中論).

*** 東方曰夷(『禮記』王制), 夷, 東方之人也(『說文』), 戎伐其西南[注]戎, 山夷也(『左氏』文 16), 又其外方五百里曰夷畿(『周禮』夏官 大司馬).

가능한 일이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국을 차별하는 화이사상과 화가 이를 왕화 시켜야 한다는 왕화사상으로 구성되는 천하사상은 자의적이다.

신라는 우륵도를 이에 위치시키는 방법으로 화의 입장을 확보한 셈이나, 우산국이 동의한 일은 아니다. 신라의 자의적인 단정일 뿐이다. 우산국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을 일삼는 신라가 이였을 것이다. 결국 우산국은 신라에 복속되는데, 그것이 우산국 스스로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신라 중심의 기록이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다.

존재하는 국가들은 자국을 천하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천하관을 구축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하나가 이로 단정한 주변국을 병합시키는 일이었다. 그럴 경우 정통성은 화에게 있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무방하다. 『광개토왕비문』이나 『고사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들은 자의적으로 자국을 천하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주변국들은 조공해야 하는 이에 위치시킨다. 그래서 『광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백제나 신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고구려의 속국이고, 『고사기』의 백제와 신라도 일본에 조공하는 나라로 되어 있다.

신라는 「중원고구려비문」에서도 고구려의 주변국이다. 그곳의 고구려는 신라를 동이로 칭하며 의복을 하사했고, 신라왕은 스스로 매금을 칭하며 그것을 수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고구려가 신라를 주변의 이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에게 이로 취급되는 신라가 우산국을 이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신라도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가 우산국을 이로 취급했다는 것은, 우산국도 자국을 천하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신라를 이로 취급하는 천하관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교오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처럼 고구려에게 이로 취급되는 신라가 우산국을 이로 취급했다는 것은, 우산국도 자국을 천하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신라를 이로 취급하는 천하관을 구축한 경우도 상정 가능하다. 그런 경우는 교오라는 용어로도 추정할 수 있다.

신라가 우산국을 우한하고 교오하다고 판단한 것은 우산국이 그렇게 판단할만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신라의 질서에 포섭되는 것을 거부하고 맹렬하게 저항하는 우산국을 신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산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을 수호하는 일이었고, 또 그럴만한 국력을 구축하고 있었기에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런 우

* 諸位賜上下衣服教東夷寐錦(徐永大「中原高句麗碑」(『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44).

** 權靜「신라의 천하로서의 우산국」(『日本學研究』第19輯, 檀國大學校日本研究所, 2006, 10), P.211.

산국을 신라 중심의 기록이 차별적인 용어로 비하한 것이다. 따라서 우한이나 교오와 같은 용어는 우산국의 자신감에 근거하는 당당함을 반증하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

그런 용어들은 우산국을 정벌의 대상으로 보고 사용되었지만, 우산국은 무위로는 정벌할 수 없어 목우사자로 위협하는 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였다. 그런 우산국이 목우사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자나 사자를 매개로 하는 문화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무위에 근거하는 신라의 침략을 퇴치할 수 있었다. 그런 우산국을 신라 중심의 기록들이 우한, 도이, 교오 등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래야 신라에 정벌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우산국 정벌

우산국을 차별하는 용어로 화의 위치를 확보한 신라의 우산국 침범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우산국은 패하여 복속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사부가 목우사자를 보이며 거짓말(광고사고)을 해도 정벌의 정통성에는 결함이 없다. 그런데 그런 차별적 용어들이 우산국의 실체를 노정시킨다.

신라는 우산국 정벌에 실패하자, 우산국의 전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자연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보았다. 그러면서 무위가 아닌 목우사자를 보이는 계책을 강구했으며, 우한한 우산국 병사들이 그 계책을 간파하지 못하고 속은 것이라 했다. 우산국은 그 이전의 무위에 근거하는 신라의 침략을 격퇴시켰으면서도, 목우사자를 보이며 위협하는 이사부의 계책은 간파하지 못하여 정벌 당한 것이다. 신라가 우산국과 전쟁하여 1회 이상 패한 후에 승리했다는 것인데, 512년 이전에 우산국 정벌을 명받은 자가 분명하지 않다.

신라의 지증왕은 506년에 실직주를 설치하자 이사부를 군주로 임명하고, 512년에는 하슬라주의 군주로 임명하여* 우산국 정벌을 명했다.** 그러자 위로는 복속시킬 수 없으니 계책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사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직주가 강원도 삼척 지역이었고, 하슬라주가 같은 강원도 강릉과 명주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512년 이전에 우산국 정벌을 시도했다면 이사부가 지휘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위로는 이길 수 없다며 목우사자로 위협하는 계책

* 智證王6年, 以異斯夫爲悉直州軍主(『三國史記』卷40, 雜志9, 外官).

** 군주는 신라 최고의 외관으로 진골에 임명되었으며, 예하의 군·현을 통제하면서 자체의 보좌관을 거느리는 특수한 관직이었다(申濤植「新羅의 地方制度 發達과 軍主」, 『新羅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P.151).

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주는 국토방어나 외족의 방지를 위한 군사적 정치적 책임을 맡길 필요에 의해 신설한 관직이다. 점령지의 확일적 지배나 왕권과 지방 세력의 연결에 따른 통일적인 통제를 위해, 왕의 측근을 외관으로 파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우산국 정벌이었다. 종래의 정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사부를 군주로 임명하며 우산국의 정벌을 명하는 것을 보면 거국적인 행사로 보아야 한다. 태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사부는 내물왕 4대손으로 가야를 정벌한 경력도 있다.** 그런 이사부에게 우산국 정벌을 명령했다는 것은 그것이 가야정벌에 버금가는 거국적인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사부는 위로는 복속(來·服·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를 취하는 전술로 우산국은 복속시켰는데, 복속을 의미하는 래는, 그때까지 불복하던 우산국의 사자가 토산물을 바치기 위해 신라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속한 주변국이 공물을 헌상하는 래공이나 주변국의 군주가 즉위하고 천자에게 얼굴을 보이며 복속을 서약한다는 래왕과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신라가 무위에 근거하는 우산국 정벌에 실패하자 목우사자를 보이는 계책으로 목적을 달성 했다는 것은, 우산국이 스스로 항복을 서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무위로 격퇴시킬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목우사자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복속을 서약한 것이다. 그것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한한 도이이기 때문에 속은 것이라 했으나, 그렇지 않고, 목우사자가 상징하는 가치가 자신들의 무위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산국의 복속은 목우사자의 외형이 두려워서 항복한 경우와 성수로서의 사지를 인식하고 항복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우산국 사람들이 우한하다는 것에 근거하면 외형이 두려워 항복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우한했다면 외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조소하며 공격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산국 병사들이 두려워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목우사자가 상징하는 가치, 즉 불법을 수호한다는 사자가 내린다는 재앙으로 보아야 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산국이 불복하며 조공하지 않는 원인을 험한 자연조건에서 구하는데, 그것은 우산국의 독자적인 국력, 타국의 질서에 포함되지 않으려는 자립심, 지리조건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등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었다. 우산국

* 申澄植 「新羅軍主考」 (『白山學報』 19號, 白山學會, 1975,12), P.207.

** 異斯夫[或云苔宗]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戲 誤加耶[或云加羅]國取之((『三國史記』 卷44,列傳4).

*** 使各以其方賄來貢(『史記』 孔子世家), 四夷來王(『書經』 大禹謨).

이 자연을 활용하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신라에 저항하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삼국유사』는 교오·^{불신}不臣을 이유로 우산국을 도이로 단정했는데, 그것 역시 신라 중심의 판단이다. 이 경우의 우릉도 주민은 예를 알지 못하니까, 예를 아는 신라가 우릉도를 복속시켜 예를 알게 해야 한다. 그렇게 신라에게 정벌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용어다. 우산국은 도이이기 때문에 신라에게 정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용어로 차별되는 신라와 우릉도의 관계다. 그래서 우릉도 주민들은 교오한 도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산국 병사들이 목우사자가 불교를 수호하는 성수라는 알고 항복을 서약했다면, 그것은 우한한 대응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불교문화까지 이해하는 병사들로 보아야 한다. 우산국은 주변국과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불법을 수호하는 성수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었고, 신라의 침략에 저항하며 격퇴시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자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가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산국의 실체를 아는 일이다.

V. 우산국의 사자

1. 불교의 사자

사자는 중국에도 없는 공상의 동물이었다. 한무제에 사자를 헌상한 월씨는 곤륜산에서 태어나 기를 먹고 이슬을 마시는 동물이라고 했다. 사자의 소리는 천둥과 같아 주변의 모든 동물이 벌벌 떨었고, 백수의 왕이라는 호랑이도 사자를 보면 눈을 감았다 한다. 기를 먹고 이슬을 마신다는 것은 공상적 서술로 맹수임을 강조하는 방법이었다. 후한에 이르러서야 사자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도 사자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천계를 비상하며 인간의 영혼을 영계로 안내하는 성수였다.*

5세기의 남북조 시대에는 능묘만이 아니라 불교예술에도 사자가 등장한다. 사자의 조각이 대좌나 기물 옆에 놓이게 되었다.** 절의 산문에서 불교를 수호하는 인왕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실제로 무서운 맹수인데, 중국인

* 山東省 嘉祥縣의 武氏石祠堂, 四川省 雅安縣의 高頤墓의 석조(野津龍 『因幡の獅子舞研究』 (米子プリント社, 2003年) , P.275).

** 山東省 嘉祥縣의 武氏石祠堂, 四川省 雅安縣의 高頤墓의 석조(野津龍 『因幡の獅子舞研究』 (米子プリント社, 2003年) , P.275).

들은 그것에 공상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공스런 허구의 위력까지 첨가한 것이다. 사자에 날개를 달아 비상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영혼을 안내하는 능력까지 부여했다.

그런 허구의 능력을 기반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성수, 외도를 물리치는 성수로 인정받는다. 그러다 석가여래의 좌협시 문주보살이 타는 사자로 보현보살의 우협시라는 코끼리와 쌍을 이룬다. 현재 사찰의 정문에서 악마나 외도의 접근을 금하는 인왕도 사자에서 유래한다.* 맹수라는 사자의 실질적인 위용과 영혼의 운반자라는 공상적인 주력이 혼재하며 불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사자의 불교와의 관계는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기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흥隆과 더불어 번성했다는 기악은 괴이한 가면을 쓰고 줄지어 행진하는 옥외예능이었는데, 사자무가 포함되어 있다. 기악에 이어 전래된 무악에도 사자가 등장한다. 기악이 궁정이나 사찰의 법회 등에서 공연되면서 사자가 불법을 수호하는 성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불법에 충실하면 수호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앙을 내리는 성수였기 때문에 민중들은 외경하며 숭배했다. 영혼을 운반해 줄뿐만 아니라 악마를 퇴치하고 생명을 수호해주는 성수로서의 사자였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용사들은 갑옷이나 무구에 사자상을 장식하며 승전과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환두대도나 투구에 사자상을 장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투구에 새겨진 사자상을 ^{테이조우 잣 키}『貞丈雜記』는 투구의 차양을 사자의 면으로 만든 것으로 설명했다.

^{혼 초우 군 키 코우}『本朝軍器庫』나** ^{영 조 평 양}『兩朝平壤』은 ^{왜 중 다 재 귀 두 사 면}倭衆多載鬼頭獅面이라 했다. 사면을 ^{비 사 천 문}毘沙門天이나***

^{파 부 중}八部衆의 복부에 달기도 했다.****그렇게 하면 악마나 불운을 퇴치한다고 믿은 것이다.*****

현재에도 사자를 권현으로 모시는 일본 동북지방에서는 마을을 돌며 악마 퇴치, 방화 등을 기원하며 사자춤을 추는데, 그 의미를 다음처럼 말한다.

아시아 농민의 다신교적 정신구조 또는 기반 속에서 사자는 때로는 신이고, 정령이고, 악마이고, 혹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사자무를 통하여

* 本田安次『日本の伝統芸能』第十卷 風流 (錦正社, 1988) ,P,160.

** 『本朝軍器考』新井白石가 지은 12권의 武家故實書. 속설을 일소하고 확실한 문헌 유품 화화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고증했다.

*** 毘沙門天: 四天王의 하나. 須彌山の 半, 第四層의 水精埵에 있다. 몸에 七寶莊嚴의 甲冑를 걸치고, 無量百千의 夜叉를 통솔하여 북방을 수호하고 재보를 주관한다.

**** 하찌부슈(八部衆):부처의 설법을 듣는 8종류의 사람들. 불법을 수호하는 8종류의 신들(中村元『佛教語大辭典』東京書籍,1975년).

***** 本田安次『日本の 傳統藝能』제10권 풍류1(錦正社, 1996년),P,168.

사람들은 초자연적 세계에 접촉하여, 신의 은총, 혹은 영귀의 가호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민중들이 사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정리한 설명이다. 이런 사고는 옛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중들은 사자에게 악마나 사신을 퇴치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귀속자를 수호한다는 허구적 능력까지 부여하고 그 수호를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런 일본의 사자 인식이 백제를 통해 전래된 기악에서 유래하고, 환두대도 역시 삼국에서 전래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자인식과 신라의 그것은 유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변국의 사자인식

삼국이 사자를 언제부터 인식했는가는, 사자가 불법의 수호하는 성수라는 것을 근거로 하면, 불교의 전래와 같은 시기로 보아야 한다. 삼국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공인했다는 고구려에는 소수림왕 2년(372)에 전진의 승려 순도가 불경과 불상을 전했고, 백제에는 침류왕 원년(384)에 인도의 마라난타가 전했다. 신라는 법흥왕 8년 521년에 공인하지만, 그 이전의 미추왕과 눌지왕 때 고구려 승려들이 전파한 일이 있었다.** 것처럼 불교가 전래될 때 사자 인식도 같이 전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인식된 삼국의 사자 인식은 일본의 기록과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는 552년에 백제의 미마지가 일본에 전한 기악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악에 사자무가 포함되어 있다.**** 기악은 불교의 흥륭과 더불어 급속히 보급되는데, 지도 사자 사자고 오공 금강가 루라곤 료오녀 역사대고 부대 무서운 형상의 治道를 선두로 해서 師子·師子兒 吳公金剛迦樓羅崑崙吳女力士大孤父大 고아 취고 왕 취고 종 孤兒醉古王醉古從의 가면을 쓴 일행이 줄을 지어 행진하는 예능이다. 그 가면의 사자상이 일본 사자상의 원류를 이룬다.*****

* 古野清人 『獅子의 民俗』 (岩崎美術社, 1986) P.7.

** 道稟教至雞林 寓止王城西里 今嚴莊寺 于時末羅王卽位二年癸未也(『三國遺事』 卷第三興法阿道基羅), 初訥祇王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中作窟室安置(『삼국사기』 卷第四法興王15년)

*** 又百濟人味摩之歸化. 曰,學于吳, 得伎樂舞. 則安置櫻井,而集少年, 令習伎樂舞. 於是, 眞野首弟子·新漢濟文, 二人習之傳其舞. 此今大市首·辟田首等祖也(『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下』 推古天皇20年5月, 岩波書店, 1971, 199頁).

**** 本田安次 『日本の伝統芸能』 第十卷 風流 (錦正社, 1988) ,P.167.

그런 사자 인식은 『^{신 제이 코 가쿠 즈}神西古樂圖』의 ^{시 라기코마}新羅狛로도 확인된다. 그것은 손발가락의 형상이 사자의 두상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사자가 다섯 개의 사자머리를 달고 있다.*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허구의 사자상의 창출한 것이다. 그런 사자의 위용은 무구에도 활용되어, 환두대도의 손잡이나 투구의 차양을 사자상으로 장식했다. 그런 무구를 소지하거나 갑옷을 걸치면 사자의 수호로 영생을 보장 받고 전공을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자의 가면은 전하지 않으나 우산국 정벌이 이루어지는 5세기의 사자상은 환두대도를 통해 확인된다. 4세기에서 6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마네켄}島根縣 ^{야스기시}安來市 ^{아라시마코혼군}荒島古墳群 ^{호토케야마코혼}倭山古墳에서 출토된 ^{시 카미 칸 토우 타 치}獅嚙環頭大刀의 사자상도 그 중의 하나다. 칼의 손잡이 끝의 둥근 고리 안의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손잡이 부분을 물고 있는 형상인데, 백제나 고구려에서 제조되어 전래된 것이다. 유사한 것이 ^{아오모리켄}青森縣 ^{하치노헤시}八戸市에 있는 ^{탄고타이코분}丹後平古墳群 15호분에서 발굴된 ^{시 카미시키 산 루이 칸 토우 타 치 쓰카가리}獅嚙式三累環頭大刀把頭の 손잡이다. 길이 9,7Cm, 최대폭 5,8Cm로 사자가 대도의 손잡이를 물고 있는 것을 크로바 모양의 3륜이 둘러싸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의 북암리 3호군에서도 발굴되었는데, 크로바 모양의 삼환 속의 사자가 손잡이 부분을 물고 있다.** 포효하는 사자의 윗잇몸의 좌우로 뻗은 송곳니 사이의 4개의 가지런한 이가 손잡이를 물고 있다. 손잡이와 도신의 길이가 84Cm인데, 삼국에서 제조된 것이다.*** 그것을 ^{귀면문삼환두대도}鬼面文三還頭大刀라고 표기했는데, 199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특별전 『백제』의 도록은 ^{사치삼루환두대도}獅齒三累還頭大刀로 표기했다.**** 「귀면문」을 「사치」로 표기한 것이다.

귀면문은 인간생활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 등의 사악한 것들을 초자연적인 존재인

**** 毛利三彌・西一祥『演劇史と演劇理論』(日本放送出版協會,1989).18頁.

* 本田安次『日本の伝統芸能』第十卷 風流 (錦正社, 1988) ,P,179

** 金洛中 「5-6世紀 榮山江流域 政治體의 性格-羅州 伏岩理 3號墳 出土 威勢品分析」(『百濟研究』 32권, 2000년.8월,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金洛中 「5-6世紀 榮山江流域 政治體의 性格-羅州 伏岩理 3號墳 出土 威勢品分析」(『百濟研究』 32권, 2000년.8월,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국립중앙박물관『특별전 백제』(1999,통천문화사),98頁

귀의 힘을 빌려 멀리 쫓고 행복을 얻으려는 ^{피 사 구 복}辟邪求福에 근거한다. 대체로 얼굴 부분을 귀수로 표현하는 문양이나 전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험상궂고 무서운 것이 특징으로, 은대의 청동기에 세겨진 ^{도 철 문}饗養文을 기원으로 하는데, 이후의 용문양이나 사자문양의 영향으로 소의 뿔, 맹수의 치아, 사자의 갈기 등을 조합해 놓은 듯한 험악하고 위압적인 귀면문의 기본형이 완성된다. 그런 점에서 대도의 귀수는 귀면만이 아니라 사교나 사치의 형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일본에서 발굴된 환두대도는 삼국에서 전파된 것으로 본다. 일본 서해안의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동제 쌍룡 환두대도를 ^{코 마쓰루기}高麗劔로 부르는 것은 삼국에서 전래되었기 때문이다. ^{야스기시}安來市の ^{고 광 횡 혈 고 분 군}高廣横穴古墳群에서 출토된 ^{태 환 식}太環式귀거리 환두대도 등도 고구려에서 도래된 것이다. 귀거리는 신라의 왕묘나 귀족의 대형원분, 개로왕이 살해된 웅진에서도 발견되어, 5세기에 이루어진 삼국과 일본의 문물 교류를 엿볼 수 있다.*

기악의 사자 ^{코마이누}狛犬는 ^{시 라기코마}新羅狛와 유사한 것으로, 둘을 쌍으로 제작하여 신사나 사전에 배치하는 일이 많다. ^{코마}狛는 개와 비슷하나 상징적인 동물이므로 사자로 볼 수도 있다. ^{코마이누}狛犬는 고려에서 전래했다는 사자와 닮은 것으로, 나무 돌 금속 등으로 제작하여 옥좌의 거실이나 신사의 사전 사두에 설치하여 액을 예방하려 했다. ^{코마}狛는 ^{코 마 코 마}高句麗·高麗를 의미하나 고구려서 전래된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 라기코마}新羅狛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코마이누}狛犬는 ^{헤이 안}平安시대의 수필집 『^{마쿠라노소우시}枕草子』에서도 확인된다. 궁중에 ^{코마이누}狛犬와 ^{시 시}獅子를 쌍으로 설치하여 음식을 관장하는 ^{신 좌}神座로 삼았다.** 이때의 ^{코마이누}狛犬는 ^{시 시}獅子와 구별되지만, ^{코마}狛犬의 ^{코마}狛가 ^{코 마 코 마}高句麗·高麗와 같은 훈으로, 삼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 라기코마}新羅狛와 통용된다.

* 全浩天・李成市・上田正昭・西谷正・申敬徹李・炳魯「北東アジアシリーズ2001,古代朝鮮3国を中心に」(島根県松江市,2001年10月 16日).

** 後の昼の行啓。御産屋。宮はじめの作法。獅子、狛犬大床子など持てまゐりて。御帳の前にしつらひすゑ、内膳御へつひわたしたてまつりなどふおしたる(日本古典文學全集『枕草子』第92段(小學館,1990),201頁).

사자에 버금가는 맹수였다.

삼국의 사자상이 일본의 기악, 무구, 회화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삼국에 사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인식한 사자를 일본에 전해준 결과다. 그래서 사자를 ^{시 라기코마 시 라기 시 시 코 마 코 마}新羅獅·新羅獅子·高句麗·高麗 등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불교문화가 삼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는 과정에, 삼국과 일본의 사이에 위치하는 우산국에 전래된 경우는 상정 가능한 일이다.

3. 우산국의 사자인식

512년의 우산국에는 사자가 없어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것은 신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신라가 목우사자를 보이며 위협하고 우산국은 그것이 두려워 항복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자를 두려워하려면 경험하거나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험하지 못하면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고구려 신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유화와 혼인하려고, 하백에게 신분을 밝히며 딸과의 교제를 요구했으나 하백은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백이 잉어, 뱀, 사슴으로 화생할 때마다 해모수가 수달, 매, 승냥이로 화생하며 주능의 우위를 보이자, 그때서야 하백이 딸과의 교제를 허가했다.*

그런 우위경쟁은 『고사기』에도 있다. 지신 ^{오오쿠니 누시노카미}大國主神가 국토를 완성하자, 천신 ^{아마}天照太御神가 천손을 통치자로 하강시켰고, 지신은 그것에 반발했다. 천신의 우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신이 3회째에 우위를 입증하자 지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지상의 통치권을 양도했다.** 우산국 병사들이 목우사자를 두려워하며 항복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무위로 신라의 침범을 격퇴시켰던 우산국 병사들은 자신들의 무위보다 사자의 능력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항복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사자를 경험하고 인식했는가다.

이사부가 목우사자를 보이며 위협하면서, 그 위협이 거짓이라고 전제했는데, 거짓의 내용도 분명하지 않다. 항복하지 않으면 맹수를 풀어 밟아 죽이겠다고 위협했으나, 사자를 풀어 놓거나 사자가 우산국 병사들을 밟아 죽이는 일을 실지로 실현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목우사자를 풀어놓는다거나 목우사자가 밟아 죽인다고 말한 것을

* 伯化作鯉,王尋變爲獺,立捕不待跬,又復生兩翼,翩然化爲雉,王又化神鷹,搏擊何大鷲,彼爲鹿而走,我爲豺而趨,河伯知有神,置酒相燕喜(『東明王篇』).

** 權五曄權靜畝『古事記』상,고즈원,2007,296頁.

거짓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거짓이 불법을 수호하는 성수로서의 사자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우산국 병사들이 이사부의 거짓에 속아서 항복했다는 것은, 그 거짓을 믿었다는 것으로, 사자가 자신들의 무위보다 우월한 주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삼국사기』는 우한하기 때문에 속은 것처럼 기록했으나, 배에 실려서 흔들리는 목우사자의 외형이 두려워서 항복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신라가 많은 목우사자를 1척 이상의 전선에 싣고 있었다 하나, 해수에 흔들리는 그것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을 우한하다는 우산국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우한했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조소하며 맹공을 가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항복했다는 것은 사자가 불법을 수호하는 성수라는 것을 알고, 성수가 내리는 재앙이 두려워 항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사부가 싣고 왔기 때문에, 이사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목우사자가 이사부의 뜻에 따라, 불법의 재앙을 내릴 것으로 믿고 항복한 것이다.

512년의 신라와 우산국이 불교를 공인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도 신라가 불교를 수호한다는 사자를 보이며 위협하고 우산국 병사들이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신라와 우산국이 불교를 수호하는 성수로서의 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산국의 불교를 기록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부가 목우사자를 보이며 위협하는 512년 당시에는 불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그런 인식은 삼국이나 중국과의 교류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산국이 주변국과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사자를 인식하고 두려워한 것이다. 그런 우산국을 『삼국사기』가 기록한대로 우한한 나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중국이나 삼국과의 교류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사자가 불교를 수호하는 성수라는 사실도 인식한 국가로 보아야 한다.

VI. 결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산국을 우한한 사람들이 사는 도이의 나라로 단정했다. 그래서 우산국은 신라에 복속되어 조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산국 정벌하려는 신라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단정일뿐 우산국의 실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은 신라의 침범을 1회이상 격퇴시킨 나라로, 이사부가 새로운 무위가 아닌 다른 계책을 세워야 복속시킬 수 있었던 나라였다. 우산국의 국력이 신라와 대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삼국사기』는 우산국이 자연에 의지하여 신라를 격퇴시킨 것으로 비하하고 있으나 자연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신라에 대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증거다. 우산국은

기록처럼 우한한 나라가 아니라 신라가 무위로 복속시키지 못할 정도의 국력을 구축한 나라였다.

우산국 병사들이 목우사자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우한과 모순되는 대응이다. 이사부의 말대로 우한했다면 사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는 보다는 조소하며 맹공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산국 병사들이 두려워한 것은 목우사자의 외형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가치로 보아야 한다.

우산국과 신라는 물론 중국에도 없는 맹수가 사자다. 그것을 중국은 불교의 성수로 여겼고, 중국에서 불교를 전수 받은 삼국이나 일본도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 사자를 신라가 나무로 만들어 보이며 위협하고 우산국이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신라와 우산국이 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우산국이 주변국과 교류를 통해 불교의 사자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삼국의 사자 인식은 나주 복암리와 일본에서 발견되는 화두대도에 조각된 사자상이나 일본 회화 속의 신라사자, 백제가 전해준 기악의 사자무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사자 인식이 삼국에서 전래된 사실을 생각하면, 삼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는 우산국에 불교가 전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국에서 직접 전래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산국 병사들이 목우사자를 두려워한 것은 우산국이 주변국과 교류하며 불교문화를 수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산국은 이사부가 말한 것처럼 우한한 나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우산국이 신라의 침략을 물리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우산국이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신라와의 전쟁을 불사했다는 것은, 우산국도 침략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주변국들처럼 독자적인 천하관을 구축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우산국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독도를 영역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울릉도와 주변의 섬들을 영토로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신라도 정벌의 대상을 우산국으로 칭한 것이다.

지증왕은 방언으로 불리던 국호와 군주호를 개정하고 스스로 신라국왕을 칭할 정도로 국의 의미에 민감했다. 그런 지증왕이 정벌의 대상을 울릉도가 아닌 우산국으로 칭했다는 것은, 정벌의 대상을 섬이 아닌 나라로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우산국은 울릉도나 『삼국유사』의 우릉도와는 다르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하는 나라였다.

우산국의 독도 경험은 호기심에 의해 건너가는 경우와 표류에 의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세월과 더불어 독도를 경험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그것과 더불어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의 생활권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일월성신이나 거암과 같은 자연을 신앙하는 울릉도 사람들에게 거암의 독도가 숭배의 대상으로 군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독도는 울릉도인들의 신앙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태양을 등지고 나타나는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의 태양에 대한 신앙심까지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도와 우산국과의 관계는 신앙의 가치관과 더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智証麻立干, 李丙燾譯註, 을유문화사, 1996.
- 『三國遺事』 卷第1 智哲老王, 李民樹譯, 乙酉文化社, 1985.
- 神野志隆光 『古事記を読む』 下, 日本放送出版協會, 1994.
- 徐永大 「中原高句麗碑」,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申滢植 「新羅軍主考」, 『白山學報』 19號, 白山學會, 1975, 12
- 李鍾旭 『신라의 역사』 1, 김영사, 2002, P.88.
- 本田安次 『日本の伝統芸能』 第十卷 風流, 錦正社, 1988.
- 『東明王篇』 金鐵坡·崔柄憲 『韓國古代史』 고대편, 一志社. 1996년.
- 野津龍 『因幡の獅子舞研究』 米子プリント社, 2003年,
- 中村元 『佛教語大辭典』 東京書籍, 1975년.
- 古野清人 『獅子의 民俗』, 岩崎美術社, 1986.

日語抄録

國としての于山國

權五曄

『三國史記』の記録によると于山國は愚悍な島夷の國になっている。新羅に服屬すべき國として語られている。しかしそれは新羅中心の話で、于山國に對する配慮が欠けた記録に過ぎない。于山國の説明に用いられた用語もやはり新羅中心語なので、その言葉を逆の立場、即ち于山國の立場から読み直すと新羅を迎えて對等に戦っていた于山國の面影が浮かんでくる。新羅は于山國の征伐が單なる威では難しいことを知り、木で作った獅子を見せながら脅かす計略を取り、于山國を服屬させようとした。

これはその征伐が二回以上行われたこと、于山國が一回以上新羅を撃退したことを示唆する。また新羅の王族であり最高級の官吏である異斯夫の責任で征伐が行われたことは、それが舉國的な攻撃で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それを迎えて對戦して、退いたのが于山國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于山國こそ獨立的な國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その國威は威による攻撃は退けたが獅子像を見せる脅かしに屈したことからも伺える。威で服屬させ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國が団結して充實な國力で抗戦していた于山國の國力の反証である。また獅子を恐れたことは于山國の文化と國際交流の様子を物語ってくれる。

獅子というものは于山國はもちろん高句麗、百濟、新羅にもない。中國にもなく印度にある猛獸であった。それを于山國が経験することはあり得ない。それで怖がるはずもない。なのにそれを怖がり服屬したということは、于山國が國際交流などの方法を通じて、文化や宗教などを通じてそれを間接的に経験したことになる。獅子というものは空想の動物や靈魂を運搬する神の使者、仏法を守護する聖獸、または呪術的能力を発揮する動物として知られていた。于山國は獅子の外形をみて以上のことを思いだし、それを怖がったのであろう。つまり、威の侵略には耐えたが、獅子を媒介する文化的計略に騙されたわけである。それは文化の差による敗北であったといえる。

于山國がそれくらい新羅と對戦できたのを考えると、于山國こそ強力な國家で、獨立的くに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只、鬱陵島のみを以て成り立つ國ではなく、周辺の諸島を統合していた國であったと思われる。その統合の過程をへていたので國をも名乗っていたはずである。その一定の領域が独自の秩序で統治されていたとみられる。新羅の侵略に對抗していたことが何よりの証據である。その實情を認めたので新羅も國を付け

て于山國と呼んでいたと思われる。その統合した周辺の島の中に獨島も含まれていたはずである。

日本は獨島を竹島と呼びながら自國領であることをこじつけている。『三國史記』の于山國の記録に獨島のことを言及されていないことを言い譯にしてそこには獨島が含まれていないと主張している。17世紀に鬱陵島/竹島が朝鮮の領土であることを認めたこともあるが、そのとき認めた領域には獨島は含ま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しかし『三國史記』などの記録の于山國に獨島が含まれたことが明確である以上そのような主張は成り立たない。

三國史記 于山國 木偶獅子 異斯夫 鬱陵島 獨島 竹島 佛教

논문 투고일: 2017. 11. 30

심사 완료일: 2017. 12. 08

게재 결정일: 2017. 12. 10